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음 3월 15일) 제17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부의 양극화 불황 장기화

‘가난한’ 국민들 ‘부유한’ 고위층

국회의원 등 평균 순자산 17억38700만원
일반가구 평균 2억9500만원의 5.9배
시민들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등 사회 고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5.9배에 이른다는 집계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272명의 순자산 평균(16억2400만원) 대비 7%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9500만원에 그쳤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이 5.9배 많은 셈이다.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자산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순자산은 2015년 발표(2014년 말) 기준 15억4000만원에서 2016년 16억2400만원, 2017년 17억3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가구는 2015년 발표(2014년 3월 말) 기준 2억7500만원에서 2016년 2억8400만원, 올해 2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격차도 2015년 5.6배에서 지난해 5.71배, 올해 5.89배로 확대됐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에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이 12억6500만원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13억4000만원으로, 다시 올해 14억4300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은 과소추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재산공개와 관련해 직계 존비속이 거부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 간 재산보유 격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부’를 보유한 사회지도층은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299명은 2017년 발표 기준 총 1조11479억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 1인당 평균이 37억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가구의 12.62배에 해당한다.

전주 서신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는 “이런 양극화 현상은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서민정책이 실제 민생과 동떨어지기 쉽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체감온도도 특히 다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취업이나 부동산, 출산대책 등에 돈을 퍼붓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꽃길만 걸어요” 10일 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일원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전윤주(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라북도 협회장, 김승수전주시장, 양복규 동암재단이사장, 최춘열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호근 도의원, 정광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장애인, 인솔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꽃길만 걸어요’ 장애인과 함께 걷기 행사를 가졌다.

촛불대선 판세... 文 - 安 양강대결 재편

합종연횡 가능성 여전... 홍준표·유승민 등 범보수 결집도 ‘관심사’

‘촛불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선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자 구도로 일단 닷을 올렸다.

울 초 민주당 문 후보가 ‘대세론’ 등에 얽고 독주해온 구도는 각 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초반 판세가 2강 3약으로 재편되고 구 야권 후보 간의 ‘양강대결’이 뚜렷해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민 민주당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는 연일 검증공세를 주고받으면서 대선판을 달구고 있고,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는 ‘갈길 잃은’ 보수층을 겨냥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한 달 남은 대선은 ‘대세론’ 성벽을 지키려는 문 후보와 이를 허물어뜨릴 기세의 안 후보 간의 격전 무대로 탈바꿈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범보수 후보들이 추격전을 펴는 흐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 후보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무대에 오르지 않았다고 보고 ‘비세 현미경’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지지율은 자력이 아닌 반기문-황교안-안희정을 거친 반문 성향의 부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후보의 집권이 청산대상인 적폐 세력에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안 후보측을 견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40석 소수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문 후보가 인수위 임명 권력을 잘 이끌 ‘준비된 후보’이자 적폐청산과 통합의 책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선거 초반 ‘양강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집하고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4월 15일 20%, 4월 30일 35%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선 당일 51%를 거두는 게 목표였는데, 상승세가 너무 빨리 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도를 자신만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해 견고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는 9일 경남지사를 지을 사퇴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했던 ‘흑색’을 벗어던지고 우파와 보수층 결집에 나선다.

바른정당 유 후보 측은 대선 초입에서 원내교섭 정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TK 변화를 시작으로 뒤집기를 자신하고 있다.

정의당 심 후보는 개혁정부를 원하는 진보층의 표심을 통해 지지세를 확산하는 ‘진보강화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후보들이 저마다 수성과 여권을 꿈꾸는 가운데 합종연횡 가능성도 여전하다.

대세를 형성한 기존 야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결집이 필요하다는 게 그중 하나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 후보와 범보수 후보 간의 이른바 비문 단일화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안 후보가 자강론을 주창하는 데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보수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실이 더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인재용 기자

원광대병원, ‘한-몽 서울프로젝트’ 연수 대상 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7 한-몽 서울 프로젝트’ 연수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부간 체결한 한-몽 서울 보건의료 협정 후속 조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몽골 의료 인력들에 대한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의료 기술습득과 의료서비스 이해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 기반 진출, 연관 산업체 해외 진출 교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5월22일 연수

생 입국해 7월21일까지 9주 간에 걸쳐 소속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원광대병원은 자브홀란트(비호기과, 몽골제1중앙병원), 발빌렉(마취통증의학과, 몽골국립암센터), 친초라(산부인과, 몽골국립모자병원), 체렌다쉬(산부인과, 몽골국립모자병원) 등의 의사가 각 진료 분야에서 연수를 받는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선정돼 총 45명의 몽골 의료인들이 연수를 받게 됐다.

원광대병원은 정부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적으로 몽골 정부·의료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수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내일

대선후보 초청 개헌 의견 청취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5인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5인은 헌법개정 특위에서 사전에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참고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제시 요청사항에는 각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헌 시점을 포함한 개헌일정, 적절한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수준, 새로운 헌법 시행시기, 시급한 개헌 분야, 국회와 대통령 간 역할 분담 수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시스

우리 꽃길만 걸어요.

제9회 진안원연장 꽃잔디 축제

2017. 4. 21(금) ~ 4. 23(일)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동산 (진안군 진안읍 원연장 산 23-1 일원)

- * 상설 프로그램 : 꽃잔디 화관만들기, 나는야 꽃잔디 요정, 꽃잔디 화분 만들기, 꽃등 만들기, 꽃잎 실랑 소원나무, 꽃잔디 타투 등
- * 체험 프로그램 : 짙 달갈꾸러미 만들기, 추억의 달고나, 홈아트, 꽃잔디동산 보물찾기, 손수레타기 등
- * 공연 : 개막공연(4.21), 진분홍봄날 정인지 공연(4.22), 티브로드 찾아가는 음악회(4.22), 꽃잔디 댄스공연(4.23)

- * 문의 : 원연장마을축제조직위원회(063-433-2022)/ 홈페이지 : www.moss-pink.com
- * 입장권 : 1인 3천원 (입장권은 축제장에서 1천원으로 활용가능)
- * 주관 : 원연장마을축제조직위원회
- * 후원 :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진안군 마을축제조직위원회, 전라북도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